

제 8 장

시민운동

전단교전과 ‘시민연락협의회’결성

1971년 10월부터, 환경청장관의 재판에 의해 구마모토현지사로부터 새롭게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이른바 새인정환자) 짓소와 직적협상을 개시하자, 짓소에 의해 마을로부터 시로 번영해간 것을 지켜봐 온 미나마타시민들에 있어서 짓소의 존망은 미나마타시의 시사문제였음으로 위기감이 높아져 미나마타병 보상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일부시민들이 새인정환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려, 환자측에서도 이것에 반발하는 전단을 돌려 전단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미나마타시공해대책협의회, 시민유지일동의 2그룹이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각자 1만 명이상의 서명을 모아서, 시장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4일, 양자가 합병하여 ‘미나마타를 밝게 하는 시민연락협의회’을 결성, 대회를 열어 ①미나마타병보상문제의 조기해결, ②공해피해자구제제도의 확충 ③수은오니의 매립처리 ④미나마타병의 병명변경 ⑤미나마타시의 경제기반의 확립 ⑥신규기업의 유치 등을 관계각방면에 추진시킬 것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움직임에 대하여, 새인정환자와 지원자는 ‘짓소의 책임을 추구하지 않고, 환자를 봉쇄하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미나마타시민운동회’의 결성

1977년 10월에 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이 착공되어, 미나마타시에 있어서 겨우 밝은 전망이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짓소는, 업계전체의 불황 등으로, 누적적자가 나는 등 경영위기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민들사이에서,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존폐는 시민의 생활기반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 미나마타 상공회의소등 경제3단체가 중심으로 주민에게 ‘미나마타병대책, 미나마타 아시키타지역 진흥대책의 추진 및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유지강화에 대하여’ 호소하고, 전 시민들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월 16일, 시의회 각파대표, 미나마타병환자와 노동단체, 정당 등 27단체가 참가하여 ‘미나마타병대책, 미나마타, 아시키타지역 진흥 및 짓소미나마타공장의 유지강화에 대한 시민운동의회 (약칭 미나마타시민운동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미나마타시민운동회는 12월 25일, 시민총결기대회를 열고 ①미나마타병환자의 완전구제, 환경의복원등 미나마타병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역진흥대책을 추진하기위한 정부의 특별입법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망한다. ②미나마타병환자보상의 이행, 노동자, 하청업자를 비롯한 시민생활기반의 확보,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짓소공장의 유지과 그 사업확대에 대하여 국가와 현의 적극적인 특별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의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또, 동 회에서는 취의서에 근거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7000여명의 서명을 모집하였습니다.

1978년 4월 12-13일, 서명을 가지고 미나마타 시장, 시의회 의장, 시의회 각파대표, 시민운동의회 회장 외에 회원 17명이, 국가, 구마모토현에 대하여 ①미나마타병환자의 완전구제 ②환경복원 ③미나마타, 아시키타지역의 진흥 ④짓소미나마타공장의 유지에 대하여 특별입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진정하였습니다.

‘시민의 회’의 결성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은,미나마타시의 가장 주요한 과제이며,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미나마타병문제중에서,미나마타병소송에 대하여,후쿠오카고등재판소 등에서 관계자(국가 제외)사이에서 협의가 계속되었습니다.또,재판과 따로 짓소와 직접협상하는 등 형식으로 구제를 원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에는,국가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이런 상황속에서 , 시민들 사이로부터,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을 빼고는,미나마타의 재생,진흥은 있을 수 없다는 기운이 고조되었습니다.

1993년1월11일,시장,시의외 의장을 비롯한 의원대표가 발기인으로 되어 ‘(가칭)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재생,진흥을 추진하는 시민의회’의 결성을 호소하여,2월6일,설립총회를 열어,194명의 단체개인이 참가하여 ‘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재생,진흥을 추진하는 시민의 회’(약칭 시민의 회)를 설립하고,회장으로 미나마타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시민의 회에서 ‘미나마타병문제의조기,전면해결과 지역의 재생,진흥을 요망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약25000명의 서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시민의 회’에서는 3월6일,문화회관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 ① 미나마타병문제를 지역전체의 문제로써 인식하고,스스로 행동을 일으키고 동시에,국가 등에 대하여,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전면해결에 향하여,한 층 높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여를 원한다.
- ② 미나마타병에 대하여 이해를 깊이 하고, 서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을 갖춘 복지 지역만들기를 추진한다
- ③ 국가 등에 대하여,미나마타병환자보상의 완수와 지역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짓소에 대한 특별지원 조치를 도모하도록 원한다.

등의 5개의 대회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3월22일,23일,서명부를 가지고,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각정당,현 선출국회의원에,미나마타병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의 재생,진흥등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어육이 구마모토현 현의회에 대하여서도 같은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도,여러번 피해자구제와 미나마타의 재생,진흥, 짓소의 지원에 대한,시민집회와 진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미나마타병 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재생 및 진흥을 위한 짓소유지강화를 원하는 시민대회 (1994년 6월)



미나마타병 문제의 조기해결과 지역재생 및 진흥을 위한 짓소유지강화를 원하는 시민대회 (1994년 6월)



국가에 진정